## 자살 고위험군 예측

#### 1. 데이터 전처리

- 1) 결측값 처리
- 범주형 변수(최빈값으로 처리)와 수치형 변수(중앙값, 평균값으로 처리)가 섞여있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를 나누어 따로 처리한 다음 합친다.
- 결측 비율이 10%가 넘는 LW\_mt, LW\_oc 변수를 버린다. -> 남은 변수 86개
- labels(타겟)이 되는 mh\_suicide의 결측은 행(데이터)를 지운다. -> 남은 데이터 5935개
- 2) 전처리
- 어떤 변수가 수치형 변수이고 범주형 변수인지 나누기 위해 각 nums, cats 리스트를 만들어주어야 한다.
- 결측치를 처리한 수치형 변수에는 StandardScaler(Z-score) 정규화를 적용하여 결측치 처리한 범 주형 변수와 합친다.
- 3) 데이터 나누기

위의 과정을 통해 정리된 데이터를 train data: test data = 7:3으로 나눈다.

```
print('Train data shape: {0}'.format(X_train.shape))
print('Test data shape: {0}'.format(X_test.shape))

print('Train data label => %s' %Counter(y_train))
print('Test data label => %s' %Counter(y_test))

Train data shape: (4154, 84)
Test data shape: (1781, 84)
Train data label => Counter({0.0: 3927, 1.0: 227})
Test data label => Counter({0.0: 1684, 1.0: 97})
```

→ 나누어진 것을 확인해보니 label이 0인 값이 1인 값보다 훨씬 많다. 데이터가 불균형하다.

### •데이터 불균형 해결

```
from imblearn.over_sampling import SMOTE

smote = SMOTE(random_state=0)
X_train_over,y_train_over = smote.fit_sample(X_train,y_train)

print('SMOTE 적용 전 학습용 피처/레이블 데이터 세트: ', X_train_shape, y_train.shape)
print('SMOTE 적용 후 학습용 피처/레이블 데이터 세트: ', X_train_over.shape, y_train_over.shape)
print('SMOTE 적용 후 레이블 값 분포: \(\mathrew{m}\), pd.Series(y_train_over).value_counts())

SMOTE 적용 전 학습용 피처/레이블 데이터 세트: (4154, 84) (4154,)
SMOTE 적용 후 학습용 피처/레이블 데이터 세트: (7854, 84) (7854,)
SMOTE 적용 후 레이블 값 분포:
1.0 3927
0.0 3927
```

→ SMOTE 함수를 이용해 기존의 label이 1인 데이터로 임의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어 label 이 0인 데이터 개수에 맞추었다.

# Original model

```
from tensorflow.keras.callbacks import EarlyStopping, ModelCheckpoint
from tensorflow.keras.models import load_model

model = models.Sequential()
model.add(Dense(128, input_dim = 84, activation='relu'))
model.add(Dense(128, activation='relu'))
model.add(Dense(1, activation='relu'))
model.add(Dense(1, activation='sigmoid'))
model.compile(optimizer='RMSprop',loss='binary_crossentropy',metrics=['accuracy'])

history = model.fit(X_train_over,y_train_over,epochs=30,batch_size=512,validation_data=(X_test, y_test))
```

→ 일단 노드의 수를 정하기 위해 은닉층은 하나만 사용하였다. 노드의 수는 128로 지정하였다. 입력층과 은닉층의 활성함수는 'relu', 출력층은 'sigmoid'를 사용하였다. optimizer로는 'RMSprop'로 설정하였고 이진분류이므로 'binary\_crossentropy'를 사용하였다.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므로 Epochs=30, batch\_size=512를 사용하여 512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뽑아 30번 학습시켰다. 검증데이터로는 test data를 사용하였다.

```
loss = history.history['loss']
val_loss = history.history['val_loss']
epochs = range(1, len(loss) +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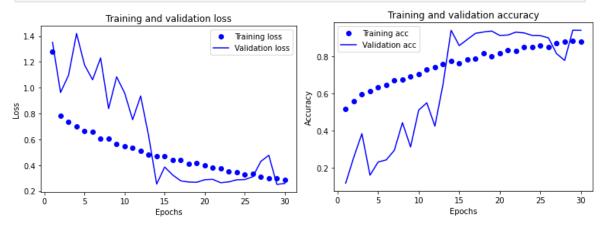
plt.plot(epochs, loss, 'bo', label='Training loss')
plt.plot(epochs, val_loss, 'b', label='Validation loss')
plt.title('Training and validation loss')
plt.xlabel('Epochs')
plt.ylabel('Loss')
plt.legend()

plt.show()

acc = history.history['accuracy']
val_acc = history.history['val_accuracy']

plt.plot(epochs, acc, 'bo', label='Training acc')
plt.plot(epochs, val_acc, 'b', label='Validation acc')
plt.title('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')
plt.xlabel('Epochs')
plt.ylabel('Accuracy')
plt.legend()
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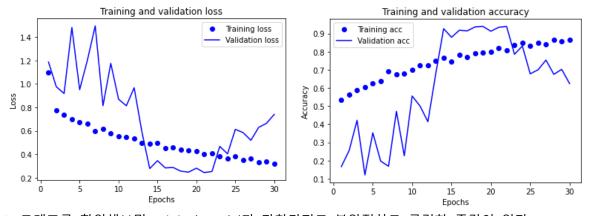
→ training data와 validation data(test data를 사용함)의 loss값과 accuracy값을 그래프로 그려보았다. 급격하게 loss가 떨어지고 accuracy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끝에는 loss값이 오르고 accuracy값은 떨어지는 모양이다. 대체로 불안정해보인다.

### · Smaller model

smaller\_hist = smaller.fit(X\_train\_over,y\_train\_over,epochs=30,batch\_size=512,validation\_data=(X\_test, y\_te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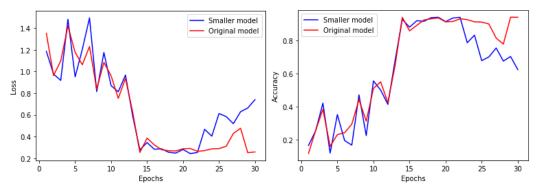
→ original model과 똑같지만 노드의 수를 100으로 줄인 모델이다.

100보다 작은 노드의 수의 모델을 만들어 비교해보았지만 전부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았다.



→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original model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하고 급격한 증감이 있다.

```
hist_dict = history.history
smaller_dict = smaller_hist.history
val_acc = hist_dict['val_accuracy']
val_loss = hist_dict['val_loss']
smaller_val_acc = smaller_dict['val_accuracy']
smaller_val_loss = smaller_dict['val_loss']
epochs = range(1, len(val_acc)+1)
# 'b' 는 파란색 실선, 'r'은 빨간색 실선을 의미합니다
plt.plot(epochs, smaller_val_acc, 'b', label='Smaller model')
plt.plot(epochs, val_acc, 'r', label='Original model')
plt.xlabel('Epochs')
plt.ylabel('Accuracy')
plt.legend()
plt.show()
# 'b' 는 파란색 실선, 'r'은 빨간색 실선을 의미합니다
plt.plot(epochs, smaller_val_loss, 'b', label='Smaller model')
plt.plot(epochs, val_loss, 'r', label='Original model')
plt.xlabel('Epochs')
plt.ylabel('Loss')
plt.legend()
plt.show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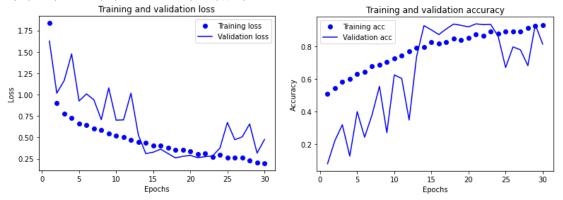


→ original model과 smaller model의 val\_loss와 val\_accuracy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았다. Original model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끝에 loss값이 올라가고 acc가 내려가는 과적합의 정도도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.=> original model (노드 128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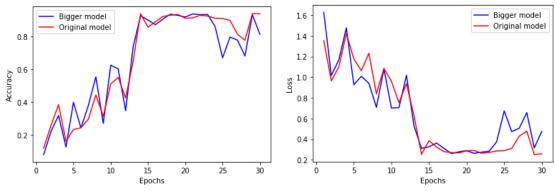
## Bigger model

```
# Bigger
bigger = models.Sequential()
bigger.add(Dense(250, input_dim = 84, activation='relu'))
bigger.add(Dense(250, activation='relu'))
bigger.add(Dense(1, activation='sigmoid'))
bigger.compile(optimizer='RMSprop',loss='binary_crossentropy',metrics=['accuracy'])
```

→ 위의 모델들과 같은 조건으로 노드의 수를 250으로 크게 설정하였다. 그 이상의 값은 심하게 과적합이 발생하여 250으로 지정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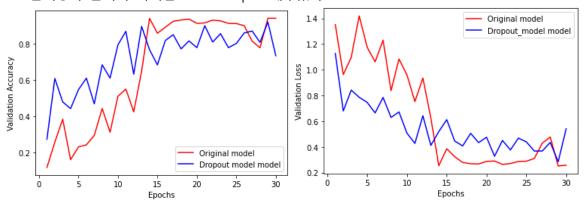
→ training data와 validation data의 loss와 accuracy 그래프이다. 급격한 증감과 끝의 과적합은 위의 두 모델과 비슷한 특징으로 보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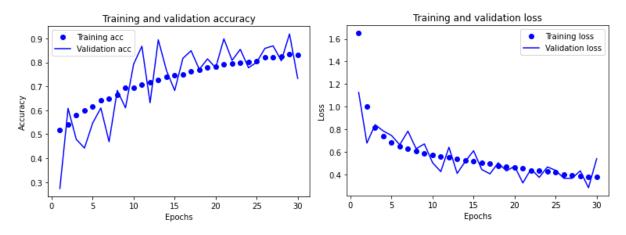
→ original model과 bigger modeld의 loss와 accuracy를 비교했을 때 original model이 더 안정적이고 끝에 과적합도 덜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=> Original model

# · Dropout layer 추가

→ 선정한 DNN 모델(노드 128개)에 dropout layer를 추가하였다.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는 0.5로, 은닉층과 출력화 사이는 0.2로 dropout해주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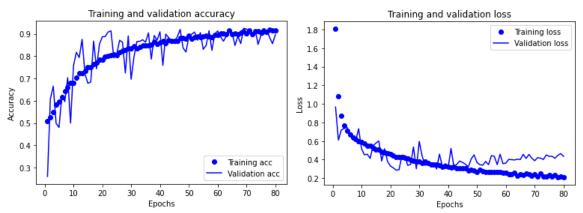
- → dropout layer를 추가하였더니 급격한 모양의 original model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하였다.
- => Dropout model이 더 나은 모델.
- +) dropout model와 original model에 층을 더 쌓아보았지만 둘 다 오히려 불안정해졌다.



→ training data와 validation data의 accuracy와 loss값 그래프를 그려보았다. Validation data의 그래프가 대체로 불안정하지만 epochs가 커질수록 accuracy가 증가하고 loss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more\_hist = more\_model.fit(X\_train\_over,y\_train\_over,epochs=80,batch\_size=512,validation\_data=(X\_test, y\_test)

→ L1, L2 규제를 해주기 전에 모델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 epochs를 80으로 올려 실행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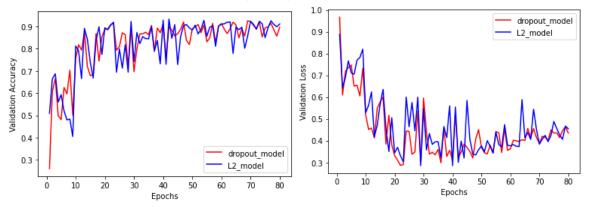


→ training data와 validation accuracy의 accuracy와 loss를 그려보았습니다. Epochs 40이후로 점점 loss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Loss값이 계속 감소하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.

#### •L2 규제

```
| 12_model = models.Sequential() | 12_model.add(Dense(128, input_dim = 84, activation='relu', kernel_regularizer=regularizers.12(0.0001))) | 12_model.add(Dropout(0.5)) | 12_model.add(Dense(128, activation='relu', kernel_regularizer=regularizers.12(0.0001))) | 12_model.add(Dropout(0.2)) | 12_model.add(Dropout(0.2)) | 12_model.add(Dense(1, activation='sigmoid')) | 12_model.compile(optimizer=RMSprop(),loss='binary_crossentropy',metrics=['accuracy']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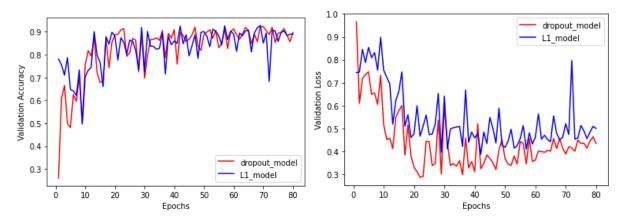
→ 위의 모델에 L2 규제를 적용하였다. (0.0001)



→ 기존의 모델보다 L2 규제를 적용한 모델이 더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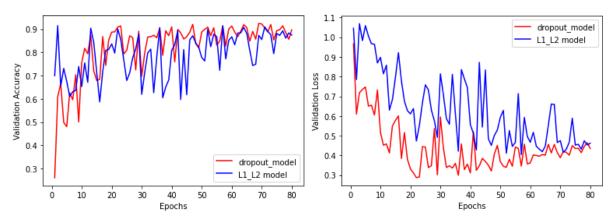
### ·L1 규제

```
I1_model = models.Sequential()
I1_model.add(Dense(128, input_dim = 84, activation='relu', kernel_regularizer=regularizers.I1(0.0001)))
I1_model.add(Dropout(0.5))
I1_model.add(Dense(128, activation='relu', kernel_regularizer=regularizers.I1(0.0001)))
I1_model.add(Dropout(0.2))
I1_model.add(Dense(1, activation='sigmoid'))
I1_model.compile(optimizer=RMSprop(),loss='binary_crossentropy',metrics=['accuracy'])
```



→ 기존의 모델보다 L1 규제를 적용한 모델이 더 불안정해 보이고 val\_loss은 더 높다. 기존의 모델이 더 적절한 모델이다.

### ·L1 L2 규제



→ L1\_L2 모델의 val\_loss값이 기존 모델보다 전체적으로 높고 val\_accuracy값은 더 낮으며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.

=> 규제를 적용해본 결과 기존의 모델이 가장 적절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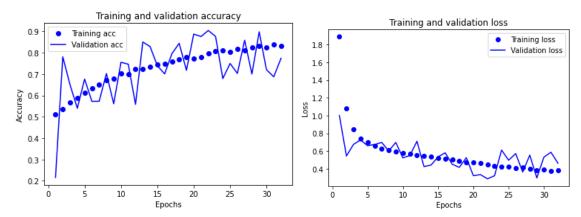
### · early Stopping

```
import os
from tensorflow.keras.callbacks import ModelCheckpoint,EarlyStopping

MODEL_DIR = './model/'
if not os.path.exists(MODEL_DIR):
    os.mkdir(MODEL_DIR)

modelpath="./model/{epoch:02d}-{val_loss:.4f}.hdf5"
mc = ModelCheckpoint(filepath=modelpath, monitor='val_loss', mode='min', verbose=1, save_best_only=True)
es = EarlyStopping(monitor='val_loss', mode='min', verbose=1, patience=10)
```

→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델은 하나의 은닉층과 노드 128개, dropout layer를 추가한 모델이다. 이 모델의 val\_loss값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학습을 멈추어 최선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해 earlyStopping을 사용하였다. 모델이 진동하는 모양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patience를 넉넉히 설정하였다.



→ epochs를 80으로 두고 early stopping을 적용해 실행한 결과, epochs=32 지점에서 멈추었다. Early stopping을 적용하기 전의 모델인 more\_model 그래프는 끝으로 갈수록 loss값이 확실하게 증가하였지만 early stopping을 적용한 final\_model은 계속 증가하기 전에 학습이 멈추었다.

# 4. 성능 평가

#### confusion matrix

support	f1-score	recall	precision	
1684 97	0.85 0.20	0.76 0.59	0.97 0.12	0.0 1.0
1781 1781 1781	0.75 0.53 0.81	0.67 0.75	0.55 0.92	accuracy macro avg weighted av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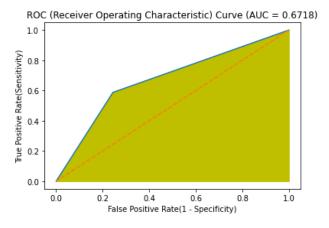
→ 다양한 모델들을 실행해보며 accuracy가 0.92이지만 recall은 0.31인 결과 등이 나왔지만 이 주 제에서는 자살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 대한 예측보다 자살 고위험군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recall값이 높아야 했다. Final\_model의 confusion matrix 결과 recall값은 0.59가 나왔다. Final\_model의 임계치를 낮추고 각 class에 가중치를 1:9로 주어 실행하였을 때에는 recall값이 0.8까지 나왔지만 다른 평가지표의 값이 형편없이 나왔다. 따라서 final\_model을 최종 모델로 결정하였다.

# confusion matrix from sklearn.metrics import confusion_matrix,classification_report								
predict = final_model.predict_classes(X_test)								
<pre>print(classification_report(y_test,predict))</pre>								
	precision	recall	f1-score	support				
0.0 1.0	0.96 0.30	0.96 0.31	0.96 0.31	1684 • 97				
accuracy macro avg weighted avg	0.63 0.92	0.63 0.92	0.92 0.63 0.92	1781 1781 1781				

#### • ROC

```
# ROC 그리기
fpr, tpr, thresholds = metrics.roc_curve(y_test, predict) #곡선 그리기
plt.plot(fpr, tpr)
plt.fill_between(fpr, tpr, color='y')
plt.plot([0, 1], [0, 1], '--')
plt.xlabel('False Positive Rate(1 - Specificity)')
plt.ylabel('True Positive Rate(Sensitivity)')
score = metrics.auc(fpr, tpr) #멸적 구하기
print(score) #1.0
plt.title('ROC (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) Curve (AUC = {})'.format(round(score, 4)))
plt.show()
```

#### 0.6717835541298334



- → ROC 그래프가 (0,1) 점에 가까워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이다. 즉,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것인데 최종 모델의 AUC는 0.6718정도로 나왔다.
- => 최종 모델의 AUC: 0.6718